64

◈내흉동맥과 요골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의 조기결과

나찬영, 이영탁, 김욱성, 오삼세, 김수철, 이택연, 전홍주, 박영관, 김종환, 홍승록

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관상동맥우회술시 내흉동맥을 이용한 경우가 복재정맥보다 장기개통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동맥이식편의 이용에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저자들은 1997년 5월부터 1998년 7월까지 43례에서 내흉동맥과 요골동맥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여 이에대한 조기결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방법 : 환자는 남자가 28례 여자가 15례였으며 나이는 35세에서 78세로 평균 61.5세였다. 이중 양측내흉동맥을 이용한 30례중 7례에서 당뇨병이 동반되었으며 70세이상도 5례가 포함되었다. 수술은 양측내흉동맥만 이용한 경우가 8례, 좌측내흉동맥과 양측요골동맥을 이용한 경우가 2례, 좌측내흉동맥과 좌측요골동맥을 이용한 경우가 11례, 양측내흉동맥과 좌측요골동맥을 이용한 경우가 22례로 분포하였다.

결과 : 수술에따른 사망은 1례로 수술후 저심박출증으로 대동맥내 풍선펌프시행후 상장간막동맥 경색으로 수술후 3일째 사망하였다. 생존한 42례에서는 수술후 심근경색, 양측내흉동맥사용으로 인한 종격동염의 발생은 없었다. 또한 수술후 출혈 1례, 저심박출증 3례(1례는 대동맥내 풍선펌프이용)였으며, 추적기간중 협심증의 재발이 3례있어서 추적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2,3,7개월)하였으나 전례에서 이식편의 개통은 양호하였다.

결론 : 복재정맥을 이용하지않고 내흉동맥과 요골동맥이식편을 이용하여 특별한 합병증없이 동맥이식편만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이 가능했으며 향후 장기추적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책임저자:나찬영(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 발표자:나찬영(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